

4후보 모두 “호남 민심 받들 책임자는 나”

국민의당 당권주자 광주서 TV 토론회

安 “지방선거 반드시 성공”...내년 서울시장 출마 시도도 “호남 정신 되살리겠다” 한목소리...당원 연수서 지지 호소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20일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광주를 찾아 당의 최대 기반인 ‘호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들은 광주 MBC가 주최한 TV토론회와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원연수에 잇달아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배수의 진’을 쳤다.

안 전 대표와 이인주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전 대표(기호순) 4명은 이날 TV토론회에 출연,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당권 주자들은 누가 호남 민심을 받을 책임

자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안 전 대표는 “호남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 제 가장 큰 과제다. 다시 사랑받지 못하면 국민의당도, 정치적 안철수도 없다”며 “광주·전남의 지지가 너무나 소중하고 한 없이 절실하다. 꾸짖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낙후된 호남의 몫을, 다당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을 명령하셨지만 실망만 안겨드렸다”며 “폐배와 조작, 불통의 당대표로는 당을 또 한번 죽일 뿐이다. 호남의 아들 천정배가 호남을 들러리세우는 일을 맡아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은 호남의 자존심

이다. 이 당을 반드시 살려 광주·전남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되돌려드리겠다”며 “어중간한 회색야당에서 선명한 녹색, 선명한 개혁야당으로 탈바꿈해 당과 호남의 자존심을 살려내겠다”고 역설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나라 민주화는 광주와 호남의 발전에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며 “제가 호남의 딸이 되겠다. 호남 정신을 기반으로 전국정당화해 곳곳에 국민의당 깃발을 꽂겠다”고 말했다.

TV토론회를 마친 당권 주자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원연수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천 전 대표는 “가장 정의롭고 정치의식 높고 개혁적인 국민이 사는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합리적 보수와 온건한 진보라는 양 날개로 1등 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지방선거는 당 대표가 치

르는 선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선거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명의 당선자라도 더 끌어낼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백 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을 위한 도구로 써야한다”면서 “당의 주인에게 모든 권력을 돌리므로써 당원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등 어떤 곳이라도 당과 당원의 부름이 있으면 나갈 것이다”면서 “당을 살리는 길에 깨질 것 없고 후퇴도 없다. 앞장서서 싸우다 죽더라도 당을 살리는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난 총선 지지율인 26.7%를 회복해 국민적 열망을 복원하고 승리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추미애표 혁신’ 출범 전 난기류

당내 의원들 “중앙당 공천권 장악 의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당발전위원회 출범도 하기 전에 당내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난리가 되고 있다.

당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발전 위를 통한 혁신이 필수라는 것이 추 대표의 입장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내 주류인 ‘친문(친 문재인) 진영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오는 25일 의원 워크숍이 이번 사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당내 의원들의 반발은 강력하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는 정당발전위 출범과 관련, 친문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결론을 유보, 이후 최고위

원회 논의를 거쳐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지도부가 정당발전위의 활동 방향 가운데 하나로 ‘지방선거에 대비한 당헌·당규 등 제도보완’을 꼽았는데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1년 전에 공천 규정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시한이 지나도록 공천규칙 확정을 미루면서 난데없이 제도 손질을 위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중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각 시도당위원회에 보장하느냐의 여부도 논쟁이다. 반대파 의원들은 이번 정당발전위 논의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진 혁신안이 수정되면서 다시 중앙당의 공천권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대통령 “DJ 평화노선 계승”...다시 주목받은 ‘DJ 철학’

서울·광주·전남 8주기 추모식

文대통령 “6·15 빛나는 이정표”

이희호 여사 “유지 계승되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이 서울과 광주·전남 등지에서 열렸다. 올해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식에 참석해 “DJ의 평화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 ‘DJ의 정치철학’이 재조명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8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에서 “대통령님은 햇볕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갔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 협력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추모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환담장에서 한 쪽 무릎을 꿇은 채 휠체어에 탄 이희호 여사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사업회도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서거 8주기 추모식을 엄수했다. 추모식은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인사말 영상과 김 전 대통령 생전기록 상영,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추모사 낭독, 추모 강연 및 공연, 헌화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희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제 남편은 투옥과 망명, 연금생활 등 고난에도 신



“반갑습니다”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 앞서 이희호 여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념을 지키며 한국의 민주화,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쳤다”며 “오늘 행사가 김 대통령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지와 사상을 계승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모식에는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등

국회의원과 장휘구 광주시교육감 등 지역 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추모 강연에서는 최영태 전남대 역사학과 교수가 ‘햇볕정책과 일괄타결론’을 주제로 남북 공존과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

의도에서도 추모식이 거행됐다. 김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모식 이후에는 유류사 진전시회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이유정 인사청문회 개최 불투명

〈헌법재판관 후보〉

3野 “진보 편향” 사퇴 촉구...일정 합의 불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압박이 거세지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 헌정권 출범 후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거취는 다른 인사 문제나 주요 쟁점 법안 및 예산 심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애초 지난 17일로 잡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과거 각종 선거 때 노무현·문재인·박원순 후보 등을 지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일정을 잡지 못했다. 법사위는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소집된 오는 21일 전체회의 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확정을 재차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야권의 기류는 감안하면 이때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 3당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내지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동으로 이 후보자 거취 문제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 후보자 사퇴 촉구를 정치공세로 보는 동시에 대부분 재판관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지금의 현재 이념지형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념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홍준표 “새출발 위해朴 절연 불가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홍 대표는 20일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더는 미련을 갖고 실패한 구체제를 안고 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지만 새롭게 출발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한국의 보수우파들이 모두 구체제와 같이 몰락해야 하는가”라며 “냉정하게 판단하고 보수우파의 미

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제 우리 냉정하게 잘 잘못을 판단해 보자”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홍 대표가 연일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언급할 것을 두고 바른정당과의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사전 작업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경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일반물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 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테미빌딩군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소각정 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전 도로점 토지 200평 매매가 1억5천만원
-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토지

-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원로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0평 4억

공장

-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 ▶광산군 박곡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 ▶나주 왕곡면 송곡리 계획관리지역 분포 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